제 6회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10월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치의제도와 관련, 치대생들이 전문치과의제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드리는 글'로 정리한 후 전산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지부 수해 피해회원 99년도 협회비 면제의 건에 대해 토의하고 제43회 종합학술대회 일정(안),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 회의결과, 치과의료관리연구원사업비 '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전도, 99년도 의료보험 연구용역 의뢰에 대해 보고했다.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 회의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임형순)는 지난 10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총회 전문치의제도 시행에 관한 단일안 결의 내용과 전문치의제도 시행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임시총회 결의사항중 용어 정의나 대전제의 내용 등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또한 지난 90년과 96년 폐기된 바 있는 전문치의제도 시행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안)과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법개위(안)을 비교, 검토했다.

사진은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의 1차 회의 모습

전문치의제도 시행방안 학생과 극적 합의

치협은 지난 10월 22일 '전문치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전국치과대학학생특별위원회'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전문치의제 시행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이날 합의한 '전문치의제 시행을 위한 합의문'은 ▲일차의료기관 표방금지(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관철한다 ▲전문치의의 수는 소수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치의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범 대책기구(가칭)를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3개항이다.

이기택 협회장은 지난 10월 19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생을 방문, 전문치의제에 대한 질의에 응답했다.